

일간지 출판기사 색인

- 미해금 월북작가 李箕永전집 30권 출간-北에서 쓴 '두만강' 대표작 「고향」 등 모두 수록(중앙경제신문 1월25일 朴海鉉기자)
- “통한의 삶”을 문학으로 승화-화제작 「감옥으로부터의 사색」 「실록 정순덕」/통혁당사건 무기수 신영복씨 서간문, 최후의 여자빨치산의 생생한 체험기/비소설 베스트셀러...“이념적 갈등 없다” 운동권 독자는 실망도(서울신문 1월26일 李憲淑기자)
- 증언채록 통한 현대사 발굴 활기-독립운동 4·3항쟁 보도연맹 빨치산 등 다양/진실 밝혀 역사 바로놓는 밑돌” 높은 평가(한겨레신문 1월26일 신연숙기자)
- 증언채록 통한 현대사 발굴 활기-독립운동, 4·3항쟁, 보도연맹, 빨치산 등 다양/진실 밝혀 역사 바로놓는 밑돌” 높은 평가(한겨레신문 1월26일 신연숙기자)
- 북한서적 원전간행 잇달아-남북교류 붐타고 줄잡아 30여종/문학·인문사회과학 분야가 주종/상반된 인식·정서...실체 채득 도움(서울경제신문 1월27일)
- 외골 ‘배’박사 한국선박사 체계화-칠순 앞둔 金在瑾씨 「우리 배의 역사」 펴내/거북선 등 韓船 종류, 기능 그림 함께 해설/“특수사론 드문 역작” 평가(조선일보 1월27일 金泰翼기자)
- 美메이저출판사 횡포 극심-세계저작권협약 발효 이후 리프린트 계약 기피/대학교재 직수입 요구 최신포서 공급난 심각/국내 외국서적 복제업체 30여곳 무더기 도산/정부 “지적소유권 협상서 현실 도외시”...대응책 강구해야(국민일보 1월27일 權赫鍾기자)
- 동구권에 국내도서 적극 보급키로-출협, 올해 북경·연변 등서 순회전/蘇·유고 국제도서전엔 대량 출품(경향신문 1월27일)
- 외골 ‘배’박사 한국船史 체계화-칠순 앞둔 金在瑾씨 「우리 배의 역사」 펴내/거북선 등 韓船 종

- 류·기능 그림 함께 해설/“특수사론 드문 역작” 평가(조선일보 1월27일 金泰翼기자)
- 美메이저출판사 횡포 극심/세계저작권협약 발효이후 리프린트 계약 기피/대학교재 직수입 요구, 최신포서 공급난 심각/국내 외국서적 복제업체 30여곳 무더기 도산/정부 “지적소유권협상서 현실 도외시” 대응책 강구해야(국민일보 1월27일 權赫鍾기자)
- “동구권에 국내도서 보급키로”-출협, 올해 북경·연변 등서 순회전/蘇·유고 국제도서전엔 대량 출품(경향신문 1월27일)
- “북한서적 원전간행 잇달아”-남북교류 붐타고 줄잡아 30여종/문학·인문사회과학 분야가 주종/상반된 인식·정서...실체 채득 도움(서울경제신문 1월27일 姜升遠기자)
- 평범한 상식 담은 수필 美서 연 4주 판매1위-“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”/간결한 문체로 일상의 가치 일깨워/나뉘 가져라...남 때리지 말라 등등(조선일보 1월28일 朴晨希기자)
- “사람과 음악의 하나됨 추구”-본격 전문지 「낭만음악」 창간한 이강숙교수/“낭만”은 거짓없는 감동의 순간 뜻 담겨/창작·연주·교육 모두 대중과 함께 해야(한겨레신문 1월28일 고종석기자)
- 공산권도서전에 적극 참여-출판문화협회 올 사업계획/북경·연변 등 순회전시회도 추진/4월 출판대학 개설 전문인력 양성(한국일보 1월31일 李大玟기자)
- 출판협 정관개정 우편투표-정기총회 정족수 미달...공여지책/임원 간접선거, 직접선거 개정 위해/회원사 비협조...“홍보미흡” 주장도(서울경제신문 1월31일 姜升遠기자)
- “정치성 풍성...문학성 빈곤”-작년 하반기 한국문학 경향/연변·북한문학 쏟아져/소설 운동권논리에 치우쳐(중앙경제신문 1월31일 朴海鉉기자)
- 월북작가 林和·吳章煥전집 출간-시집 「玄海灘」 먼저 나와, 林和전집/번역문학 백미 「에세넨 시집」 수록, 吳章煥전집(중앙경제신문 1월31일 朴海鉉기자)
- “운동권가요집 나왔다”-대학가·시위현장서 불리는 노래 총정

- 리/시대 내용별로 분류 해설 곁들여/월북작곡가 음악·항일투쟁가도(경향신문 1월31일 孫東佑기자)
- “사회주의 리얼리즘 연구 활발”-북한·소련 문예이론서 국내출간 계기로 본 본격화/20-30년대 우리문학사 큰 비중...분단후 침체/일부선 “고전 바탕없는 연구는 위험” 경고도(국민일보 1월31일 朴連浩기자)
- 「潮巖의 經營哲學」 출간-故 李秉喆회장 경영이념 담아(중앙일보 2월1일 李憲益기자)
- 북한에 “임격정” 저작권 양도 제의-도서출판 사계절대표 기자회견 남북문화교류 물꼬 틀 전기로/북에 홍명희씨 아들일가 생존 확인/통일원·적십자사 통해 전달할 방침(한겨레신문 2월1일 신연숙기자)
- 강석경 새소설 「가까운 골짜기」 화제-“진솔한 삶의 모습 그렸다”/넘치는 ‘상황소설’ 속 신선한 소재 돋보여/예술인 일가의 아픔, 고뇌 극명하게 표출(스포츠서울 2월2일 박찬기자)
- “출판단지 아쉬움 속 해체”-대형유통기구 ‘꿈’ 포기 11년만에 뿔뿔이(한겨레신문 2월2일 신연숙기자)
- 시인 金宗三전집 출간-여백 위에 펼쳐는 ‘잔상의 미학’/문학사적 위치 재평가 계기로(한국일보 2월2일 金薰기자)
- 도시의 새 문화공간-서울변두리 대형서점 인기/강남·영등포·천호동 등 속속 문예어/시민·학생들 만남의 장소로도 이용(서울신문 2월3일 李憲淑기자)
- 노동문학지 시대 만개-기업체문학자를 등장으로 본격화/노동자편에서 ‘민중의 소리’를 대변/창간 줄이어...새달까지 5개 선비(서울신문 2월3일 李憲淑기자)
- 서점이 “낙서시 열풍”-대학의 낭만과 사랑 같듯...겨울이 뜨겁다/젊은이들의 현실인식 시국관 엮어 공감대 확산/이색시집 「슬픈 우리 젊은 날」 4개월 베스트셀러 1위(국민일보 2월3일 權赫鍾기자)
- “국내 저작권분쟁 늘고 있다”-지난해 조정신청 10건...출판물, 음악, 방송이 주류/무단출판 연재 복제사례 등 많아/검인지 없는 소설집 재판 타협 안돼 소송대립까지/전문가 “피해입었을 땐 즉시 중재 요청을”(스포츠서울 2월3일 오정국기자)

- 태백산 화전민의 虎患과 장례풍습-金剛山씨 민속보고서 「虎食葬」 출간/2백여 「虎食塚」 답사...자료수집/호랑이 사냥법 등 학술가치도(서울경제신문 2월3일 姜升遠기자)
- 세계문학 서구 고전 ‘편식’ 사라진다-해빙 물결타고 동구권·제3세계 작품 친근해져/일본판 마구잡이 번역 그만” 자각도 한류/활발한 비평으로 비판적 수용풍토 키워야(한겨레신문 2월3일 조선희기자)
- 북한문학 “혁명이식 고취의 도구”-「피바다」 판금계기로 알아본 실상/주체사상 찬양...계급투쟁 등 소재/공산사회 건설 당정책 구현 우선/‘문학 아닌 문학’ 특성 알고 原典 접근해야(서울신문 2월5일 朴宰範기자)
- 문화정보·시사지 창간러시-국내외정세를 학문적으로 분석...시사지/폭주하는 문화·예술정보 등 소개...문화정보지(중앙일보 2월7일 李憲益기자)
- 남북한 첫 민간서적 교류-“정부의 적극적 협조 필요”/「왕조실록」 등 학술서적부터 수입 추진/일월서각대표 崔沃子씨 밝혀(국민일보 2월7일 權赫鍾기자)
- “지방자치 다룬 책 많이 나왔다”-30~40여종 월간지는 2종 창간(동아일보 2월7일 宋煥彥기자)
- “중국 현대문학 국내상륙”-공산정권 수립투쟁 문화적 명암 주체/茅盾문학상수상 古華 「芙蓉鎮」 대표작/도서출판 한마당 등 전집출간 기획(매일경제신문 2월8일 咸承鎔기자)
- 첫 시집 「들풀이 되어라」를 낸 申東暉 미망인 印炳善씨-“詩作 통해 그분의 삶 새롭게 이해”(조선일보 2월9일 金明煥기자)
- “蘇·유고에도 첫발...출판대국 꿈 키운다”-해외도서전 참가 활발/최근 한국봄에 가세...본격 문화수출 노려/정부지원 확대도 다양·전문화 시도할 때(조선일보 2월9일 崔球植기자)
- 李盛未시집 7년만에 출간-꽃밭출판사 「빈산 뒤에 두고」/학살당한 고향방관에 죄의식/시대와 삶에서 유배당한 시인이 추스려가는 모습 그려(한국일보 2월9일 金薰기자)
- 항일무장운동 서적 출간 줄이어-“조선족 백년사화” 등 만주 한인 삶과 저항기록/독립운동사 공백 채워줄 귀중한 자료로 평가(한겨레신문 2월9일 신연숙기자)

- 북한서적 ‘7·7선언’ 이후 출간 홍수-대학가선 날개돋힌 듯 팔려/총70여종...日서 원본들여와 복사도(중앙일보 2월9일 李憲益·盧在賢기자)
- “북한서적 범람 이대로 관찮은가”-「전기 金日成」 등 울들어 37종 만4천여권 압수/설득력있는 기준 마련 서둘러야(중앙일보 2월9일 申性浩기자)
- 젊은 독자층, 청소년이 주고객-거대한 출판시장 몇몇 대형이 독점/거의 구멍가게...양질의 책 기대 어려워(세계일보 2월10일)
- 북한 간행물 수입창구 혼선-일월서각 정부허가 없이 독점계약/교보 등 허가업체 문공부에 조정요구(중앙일보 2월13일 李憲益기자)
- “갈팡질팡 語文정책, 국민은 답답하다”-새달 시행되는 정부案 새 맞춤법·표준어 문제점 점검/학년마다 다른 교과서...“어떻게 좋은 거냐”/“교본없는 문교행정” 학계·출판계 등 불만 높아(세계일보 2월13일 權赫鍾기자)
- “편견은 동질성 회복의 걸림돌”-첫 본격 학술서 「북한사회연구」 펴낸 李溫竹교수/냉전 반공이데올로기 극복 애써/평양에 교환교수로 가는 날 오길/기성세대 감정적, 젊은이들 감상적 시각 모두 잘못(경향신문 2월13일 孫東佑기자)
- “청소년모임”서 책을 만든다-“자신들 세계” 진솔하게 담아/기획·글쓰기 등도 독자해결/무크지 「푸른나무」 「이땅의 아이들과 함께」 단행본 「여기 사랑 하나 있어」 등(한국일보 2월14일 徐華淑기자)
- 李基白교수著 「한국사新論」-英·中·日 이어 스페인어판 출간(조선일보 2월14일 崔球植기자)
- 광고 관련 서적 출간 붐-60~70여종...사례·전략·표현기법 등 내용 다양(동아일보 2월14일 宋煥彥기자)
- 이념갈등 다룬 수기 인기-고난극복의지...삶의 가치 실증/기존 ‘빨치산觀’ 수정기회 제공(서울경제신문 2월14일 姜升遠기자)
- 학술·문학·출판 분야, 남북공동 연구 제의-학자 등 6명 「사회와 사상」誌에 ‘공개서한’ 기고/이질감 해소 위해 ‘우리말 사진’ 편찬을...高永根교수(중앙일보 2월14일)